

Gary Yates 박사, 제12권, 세션 19, 미가서, 소개 및 구조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19, 미가서론과 구조입니다.

우리는 소선지서 연구에서 마지막 앗수르 선지자를 살펴볼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2장에서 그들의 사역 기간은 3년에서 400년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시리아 위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한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왕국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이 위기의 시기에 유다를 섬기며 앗수르의 손에 의해 남쪽 왕국에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 위기 때의 바벨론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미가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요나서에 대한 몇 가지 마지막 묵상과 지난 세션에서 완전히 다루지 못했던 흥미로운 신학적 문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에는 이 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구원하실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책의 주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 요나가 하는 감사와 그들이 죽음과 멸망에 직면했을 때 자격이 없는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요나가 나타내는 반응 사이의 대조입니다. 최근 구약 신학에서 Dr. Moberly는 왜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급히 도망하였나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하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주셨던 것과 똑같은 자비와 동정심을 니네베 사람들에게도 보이면서 하나님께 반대합니다. Moberly 박사는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나가 이기적이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다는 단순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 장에서 우리는 화를 잘 내고 뼈죽뼈죽하고 이기적인 선지자를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를 바라보는 일부 신학자들이 요나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나 우연적 예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의 타율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예언한 내용이 항상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요나는 예언의 우연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것에 대한 좋은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걸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일어날 일의 그림자를 단지 알리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이해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절대적이고 어느 정도 무조건적인 진술이 있더라도,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적이거나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한 생각으로 고군분투하는 요나의 경우나 요나가 거짓 선지자로 분류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은혜가 더해지도록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도덕적이고 품위 있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 은혜를 너무 많이 옹호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효과를 전복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4절부터 18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가 그들과 교류할 때 그곳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거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기준으로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인가요? 그러나 요나서 4장 2절을 볼 때, 요나의 마음 속에 이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에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 사이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우프만은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는 그가 편협한 열광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성한 정의의 옹호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또한 자신이 니느웨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 주신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가 유배 기간 이후에 구성되고 정리되어 유배 기간 이후에 최종 형태로 완성된다면, 편집자들과 최종 구성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끝부분에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심술궂고 통명스러운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윤리 수업이나 철학 수업, 신학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나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책에서 그가 단순히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화를 잘 낸다. 그는 빠죽빠죽하고 유치하며 120,000명의 복지와 복지보다 자신의 햇볕 화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풍자적으로 묘사되는 걸까요? 그로부터 나오는 대답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비록 요나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은 한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어야 함을 의미할 때에도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중요한 문제,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니스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관심과 보살핌의 문제에 비하면 그 관심은 차순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서에서 취해야 할 마지막 적용은 이 책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지난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요나서가 수사적 질문으로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니스워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구가 12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도시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다면 최소한 동물들에게는 신경이라도 써주실 수 있나요? 이 수사학적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요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정경에 있는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요나의 관점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하나님 자비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일종의 마지막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는 구약성서, 특히 선지자서에서 묘사되고 반영된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구약성서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버첼이라는 작가는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성찰하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그늘진 자리로 살그머니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고방식을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편안한 집에 있는 수많은 요나들이 그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패러디한 방식과 그가 표현한 풍자적인 방식을 볼 때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유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어떤 면에서 같은 종류의 이기심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자비의 넓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주위에 원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휼과 공휼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공휼과 공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그 바깥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원 바깥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서의 다소 사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최악의 적이었던 테러리스트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깥에 두는가? 요나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알카에다 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 있었을 때,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동 성추행범이나 강간범,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 밖에 있다고 믿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니스웨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는 몇 년 전에 블로그를 썼는데, 그는 종종 우리가 바꿀 수 없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지금 이 순간 술에 취해 형제회 집에서 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다윈 피쉬(Darwin Fish) 범퍼 스티커를 차에 붙인 채 여러분 앞에서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스펀전은 지금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열성적인 LGBT 옹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더 테레사는 아마도 지금 낙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 동정심,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며, 하나님은 최악의 적이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자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자신의 죄성과 이기심, 부패함을 볼 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나서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향을 바꿔서 앗수르 선지자들의 마지막, 남왕국에서 사역하는 선지자 미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가서의 첫 절에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과 그의 사역의 시기와 날짜를 알려주는 표제를 봅니다. 그리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 외곽 모레셋 가드의 이 작은 마을에서 부르사 선지자와 대변인으로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인들을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선지자로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흥미로운 관찰이네요. 그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살피던 선지자라 그래서 그는 세 왕의 통치 기간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750년 또는 740년부터 732년까지 통치하는 요담. 735년부터 715년까지 통치하는 아하스. 이 아버지와 아들의 통치는 여기에서 때때로 중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15년부터 686년까지 히스기야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가가 이 앗수르 위기 동안 유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가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인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과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 하나인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사역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구약성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양방향으로 대조되는 것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북쪽 왕국에서 연구한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사람들에게 앗수르의 위기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서로 나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가 서로 보완하고 병행하는 몇 가지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앗시리아 위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위기가 남쪽 유다 왕국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선지자 미가의 사역과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아시리아의 위기는 8세기에 이스라엘에서 티글라트-빌레세르 3세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원전 745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분은 아시리아를 왕국으로 다시 활성화시키십니다.

그는 그들의 군대, 제국주의적 설계 및 욕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구와 시리아-팔레스타인 국가로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폴 길크리스트(Paul Gilchrist)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리아 제국주의의 촉매제는 이스라엘의 배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쪽 왕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남쪽 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34-732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수로-에브라임 전쟁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적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왕들이 앗수르의 위기를 바라보며 디글랏빌레셀 군대의 힘과 위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왕들이, 또는 그들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함께 동맹을 맺고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군사적, 정치적 결정은 매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합.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 왕, 다메섹 왕 르신이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군대와 자원, 군대를 하나로 모아 아시리아의 공격에 맞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남쪽 유다 왕국인 유다와 그들의 왕, 백성, 자원, 군대를 이 연합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에게 접근하여 이 연합에 합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자, 아하스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왕이었지만, 또한 이 연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정통했습니다. 이 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기 때문에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시로-에브라임 연합,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세력과 그들의 자원과 군대와 나라가 유다에서 현저히 많아졌느니라.

그들은 아하스를 자신들의 연합에 합류시키려고 유다 땅을 침공할 것입니다. 현재 아하스의 왕국과 그의 통치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아하스는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내 군대와 자원보다 더 큰 이 두 군대와 두 나라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물 공급.

그는 모든 정치적 옵션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불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와서 격려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아하스, 연합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베가와 르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연기가 나는 장작 두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왕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리아 왕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번 침공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가 없으며 이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두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자주 행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만일 너희가 이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하늘만큼 높이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7월에 눈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확증하는 표징을 주실 것이며 당신을 위해 이 메시지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제안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돌아서서 심판과 구원이 혼합된 메시지인 표징을 그에게 전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다메섹 왕이 주도하고 선동한 앗수르에 대항하는 연합군에 가담하는 대신 앗수르에게 와서 그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결성한 연합군을 상대하러 내려왔을 때, 그는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본질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존재한 마지막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상 사마리아 도시 주변에 모여 있는 멍청한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734년부터 732년까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이 시리아-에브라임 전투에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양측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였지만, 앗수르를 대적하지 못한 결과, 이 시점에서 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앗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왕의 손아귀에 있으며 통제와 지배를 받으며 강제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앗수르에게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예배 형태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왔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조약이나 가치 있는 봉신이 될 것임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수행하며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고 있다. 아하스 자신도 여러 면에서 문제의 일부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유의

일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 년 뒤, 시로-에브라임 연합이 끝나고,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725년부터 722년까지 3년간의 포위 끝에 함락됩니다. 남쪽의 선지자로서 미가는 사마리아와 북쪽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내려오실 때 땅이 녹고 그의 진노와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1장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1장 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집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범법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적 통찰력을 통해 북왕국의 멸망을 목도하지만, 유다에게도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10절부터 16절에서 미가는 앗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를 행진하여 유다 백성과 유다 성읍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북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도시들에도 폭력과 전쟁과 침략과 유혈 사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엄중함과 관련하여 그의 가장 유명한 심판 메시지는 아마도 미가가 이 심판이 예루살렘성에 임할 것이며 예루살렘성은 멸망되고 성전 산은 잔해 더미로 줄어들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그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해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의 산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되리라. 722년 북왕국이 멸망한 후 미가는 남왕국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임한 이 심판을 피하고 피하였으되 수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북쪽에 임한 심판이 남쪽에도 임하리라.

유다의 가장 불경건한 왕 중 하나인 아하스가 죽으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하스의 불경건한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다윗 가문의 세 왕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좋은 자질과 속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그 지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단 몇 분 만에 히스기야가 겪는 일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왜 사실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왕은 요시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충성심과 순종면에서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남쪽까지 이르렀다.

아하스 치하에서 유다는 앗수르의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는 결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앗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의 통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것의 일부는 단순히 정치적입니다.

그는 앗수르의 지배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 앗수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기를 원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종교적 신념과 주님에 대한 신실함도 있습니다. 705년에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죽자 히스기야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봅니다. 그는 유다에 대한 앗수르의 지배를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군주와 왕이 죽었을 때 봉신들에게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아시리아에 대항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로부터 나올 부정적인 측면은 히스기야가 군사 자원, 군대, 정치적 계획 등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은 히스기야의 삶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이제 그가 앗수르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결과,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은 앗수르 왕 산헤립이 그 반역에 응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히스기야를 그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유다 땅을 침공할 것입니다. 앗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이번 침공에서 산헤립은 유다 땅 46개 성읍을 함락시켰고,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두듯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사야 사역의 시작과 핵심 부분에 대한 배경과 맥락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8절에서는 딸 시온이 초막처럼 남겨졌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도원에 있는 집 같으며 오이 밭의 천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으니라 그래서 유다에서는 46개의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유다 왕국은 앗수르 군대의 압도적인 힘과 힘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산헤립과 그의 군대가 대대적인 포위 공격 끝에 마침내 정복한 46개 도시 중 하나는 라기스라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25~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진군한 뒤 내륙으로 침입하는 적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군사 수비대이자 요새였습니다. 라기스가 함락되었을 때, 그것은 산헤립과 아시리아 군대에게 중요한 군사적 성취였습니다.

이 침략이 끝난 후, 산헤립은 그의 궁전으로 돌아가 라기스를 함락시키면서 그 궁전의 벽을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는 부조로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공개되어 아시리아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안보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산헤립은 압력을 완화하고 이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히스기야에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을 때 여기서 역사적 사건의 진행 과정 중 일부와 이 모든 일이 정확히 왜 일어나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산헤립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헤립이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그에게 갚기 위해 조공을 바쳤고 산헤립은 어쨌든 침략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연대기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산헤립은 마음을 바꾸어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무너진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병력은 180,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라기스를 포위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포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굶어 죽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음식과 물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도시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저항을 주도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그의 군대 사령관 인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 도시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앗수르 사령관은 예루살렘 수비를 맡은 군인들을 조롱하며 “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이러한 저항을 계속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굶어죽게 됩니다. 당신은 식인 풍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포위 공격의 공포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는 오만한 자랑을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한 다른 민족의 모든 우상과 형상과 신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앗수르 신들의 세력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미지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신이나 형상이나 우상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딜레마, 위기의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실제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곳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을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군사 고문의 조언을 따르는 것과 자신의

군사 계획의 성향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고군분투한 이 개인은 여기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항상 내릴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은 완전하고 완전하며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히스기야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는 항복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앗수르로부터 온 외교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그 편지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앗수르 왕이 한 말을 주목하고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들이 너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항복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던 방식과 크게 대조되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신뢰와 믿음 사이의 대조는 이사야서의 주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이야기 부분은 이사야 7장과 8장, 아하스의 믿음이 부족한 이야기, 이사야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썄요, 종종 군사 연합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사야는 이 위기의 시기에 그에게 조언했고 궁극적으로 그에게 조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앗수르 사람들이 이 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향해 화살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밤중에 군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군대를 멀하고 학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도시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헤립은 다시 말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몇 년 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주님의 천사가 앗수르 군대를 멸하는 이 이야기를 종종 볼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전설적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유다 나라를 보호하고 북쪽 왕국에 닥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왕가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다윗 가문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그가 연락할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반면, 이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일종의 아웃사이드어의 전형이다. 나는 미가가 궁전에서 왕에게 조언하도록 초대받는 대신,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의 메시지 대부분을 전파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는 모레셋 가드 출신의 시골 설교자입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족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북왕국과 대조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이유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역과 그가 히스기야에게 준 조언입니다.

그들은 미가의 설교와 미가의 설교가 히스기야 왕에게 미친 영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가가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것이라는 무자비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잔해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성전의 산도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앗수르 군대가 그 도시를 포위했기 때문에 미가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미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외부인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 초대받았다거나 히스기야와 직접 접촉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이 다음 세기에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과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는지 되돌아볼 때, 그들은 히스기야의 설교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성전 설교를 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신다고 말한다. 성전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실로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소가 있던 성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요구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문제의 일부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그의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701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앗수르인들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며 “보라, 하나님이 그의 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전이 파괴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없으며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한 것이요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가 되리라 자신에게 피를 흘리십시오.

26장 16절에 변론과 의논과 회의 중에 어느 시점에 그 땅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르되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선지자들아,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사형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봐요, 그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기억하는 선지자는 선지자 미가이다. 1. 그 땅의 장로들 몇이 일어나 모인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밧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고 그 참고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니스웨에게 40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온이 밧처럼 경작되고 성전 산이 돌무더기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 중 일부는 선지자가 절대적인 심판 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실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사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이 미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유다 왕과 온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느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뉘우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우리는 곧 우리 자신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봐,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미가가 이 메시지를 전파했고,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에 닥친 멸망과 포로 생활에서 유다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사야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미가의 설교였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소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면에서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주요 선지자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의 사역이 다른 사람의 사역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큰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갖 다양한 상황과 상황, 배경과 환경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과 왕궁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이며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교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미가에게서 반드시 그런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둘 다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사역을 볼 때 우리 문화, 복음주의 세계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중요한 목회자, 대형 교회의 목회자, 책을 쓰는 사람들, 언론의 자문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종종 매우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표에

따르면 때로는 문화나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인식하거나 최전선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와 선교사, 제자들과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만큼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미디어나 그들의 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점수표가 우리의 점수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이 유다 나라를 구원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선지자 미가와 미가의 사역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보고 다시 책을 살펴보며 이 책의 구조와 구성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현대 독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서의 구조와 이 책의 구성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와 많은 예언서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와 구원 메시지 사이의 교대 메시지는 이 책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매우 간단한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 주어진 명령으로 식별됩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에서 너희 민족들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미가는 온 세상을 불러 그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3장 1절 내가 이르기를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6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산 앞에서 변론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전개하고 전개하고 있는 구조는 레슬리 알렌이 그의 저서 『미가서 신국제 주석』에서 제공한 구조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 세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각 부분에는 구원의 말씀이 따르는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 3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에는 상당히 확장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실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2장 12절부터 13절). 심판이 끝난 후에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모두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양 떼처럼, 초장의 양 떼처럼, 떠들썩한 무리처럼 함께 모이게 하리라. 틈을 여는 자가 그들 앞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문을 통과합니다.

그들의 왕이 그들보다 먼저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포로 생활 후에 양 떼처럼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섹션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길고 광범위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미가는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오 나의 원수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옹호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현재 상태를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정복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첫 번째 부분인 1장과 2장에는 심판의 긴 메시지와 구원의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도 있습니다. 심판의 긴 메시지와 구원의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책 중간에 다시 우리는 심판과 구원 사이의 교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하는 책의 중간 부분에는 판단에 대한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고도 확장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미가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강력하고 아름다운 초상화, 미래의 영광, 평화, 평화에 대한 구원의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정의가 깃들 것이다(4장 1절부터 6절). 우리는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도 중요하고 중요한 메시야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의 이 구절에서, 그 일은 후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처럼 굳건히 세워지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높이 들리고 백성이 그리로 몰려오리라

많은 나라가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리로다. 그러므로 장래에는 열방이 시온을 공격하여 공격하고 그 성을 멸하려고 오는 대신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배우러 올 것이며 그를 경배하고 그를 존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평화가 있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반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통일된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스릴 왕이 있을 것입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옛적부터 나느니라, 고대부터.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평화의 왕국을 가져오실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중간 부분에는 현 상황과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한 긴 메시지 대신에 확장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간 부분, 바로 여기 중간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조건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선지자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구원이 단순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지만 미래의 구원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심판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앗수르의 침공이 있을 것입니다.

맹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시끄러운 양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배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뒤집는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이 확장된 예언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확장된 구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의 산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낮아질 것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높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황폐하고 버려진 곳이 될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정반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지면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이 에베레스트산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중요성과 의의를 묘사하는 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3장 12절의 예루살렘의 해체와 성전 산의 낮아지는 일은 4장의 성전 산의 높임으로 직접적으로 반전됩니다. 이 심판을 가져오는 3장의 부패한 지도력은 다음과 같은 지도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할 새로운 다윗.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포로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책의 세 번째 부분으로 가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져오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겪게 될 심판을 뒤집고 뒤집습니다.

7장 첫 부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거두어들인 것과 포도를 거둔 것 같게 되었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고 먹을 만한 송이도 없도다 의인들이 땅에서 죽었고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들은 다 피를 흘리며 기다리며 강포와 불의를 행하는도다

선지자는 현재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애도합니다. 예루살렘이 열매 없는 포도송이 같으니 나에게 화가 있도다. 예루살렘은 결국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7장의 첫 부분에는 애도의 어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메시지가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마십시오. 나의 원수여. 그래서 7장 첫 부분의 애통은 7장 두 번째 부분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은 유배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뒤집고 뒤집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들 모두에서 발견되는 키워드는 남은 자(Remnant)라는 단어입니다.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시고 구원하실 남은 자들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모두를 모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남은 자(remnant)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존자,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희망을 줍니다.

4장 7절에 이르되 절뚝발이와 이 포로로 말미암아 상함과 상함과 피해를 입은 자를 내가 저는 자를 남은 자로 만들고 강한 나라에서 쫓겨난 자로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온 산에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 절뚝거리고 불구가 되고 부상당하고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남은 자와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5장 7절과 8절, 그 때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민족 가운데 있으리니 마치 여호와와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으니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에 의해 황폐화되고, 앗수르의 손에 들어가고, 전쟁의 모든 참화를 겪는 이 약화된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심으로 다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남은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합니다. 거기 이르되 그 날에 사람들이 애굽 성읍들과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건축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 그래서 이로부터 나올 생존자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곳은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 기업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죄악을 사하시며 죄과를 용서하시나이까? 이제 미가가 남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가가 그들의 생존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의 메시지의 심각성이나 엄중함을 결코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했으며, 이 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언약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회개가 없을 때 그 심판은 군사적 패배와 포로의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구조, 즉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는 이 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어느 날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회복하시고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연구하면서 포로의 심판과 앗수르의 침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망과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19, 미가서론과 구조입니다.